

#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한 기독교 교수의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 - 역설과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

**An Autoethnography Study of a Christian Professor on Christian Teaching  
- Christian Teaching as Paradox and Community**

강영택 (Young Taek Kang)\*\*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question, "What are Christian teachings?" This simple yet profound question cannot be answered solely through academic discussion and intellectual reflection. It must be answered theoretically and logically, while simultaneously demonstrating its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life. Therefore,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study adopted autoethnography, a research methodology that explores the researcher's personal life. This study divided the researcher's life into four periods and analyzed the life experiences of each period, exploring how they interacted with the social context and cultural factors of the time.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uncover how the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Christian teachings has evolved through this exploration.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teachings discovered through the use of autoethnography was not entirely new. However, some aspects that had previously remained unclear to the researcher were brought to light. This confirms that the two values pursued by Christian teaching—religiosity, or faith and publicness—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rather exist in a paradoxical relationship where both are absolutely crucial. Similarly, the meaning of Christian teaching possesses universality while simultaneously reflecting regional specificities.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at while academic theoretical orientation must be pursued, practicality is paramount. While these aspects may seem conflicting, it emphasizes that they are not a matter of choice but of integration

\* 2026년 2월 10일 접수, 4월 30일 최종수정, 6월 1일 게재확정

\*\*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교육관 3411호.  
ytkang@woosuk.ac.kr

within the context of paradox. Most importantly, this discovery highlights the communal nature of Christian teaching. This suggests that Christian teaching is best expressed within a good community, and it sh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and strengthening of that community. Therefore, Christian teaching will, above all, foster a learning community of hospitality and care, and through this community, Christian teaching will be enriched and experienced.

**Key words:** Christian teaching, autoethnograph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ovement, paradox of Christian teaching, communal nature of Christian teaching, learning community of hospitality and care

## I.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인 교육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붙들고 씨름했을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와 논의의 범위가 무척 달라진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용례에 따라 대략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가르침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교육이나 신앙교육 혹은 교회교육이라는 말들을 사용할 때 염두에 두는 의미와 상통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독교를 세계를 보는 관점 혹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대개 기독교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란 말을 사용할 때 갖는 의미와 상통한다. 전자를 ‘기독교교육’으로 후자를 ‘기독교적 교육’으로 간단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박상진, 2025). 전자의 경우에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논의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종교적 혹은 종파적인 것으로 한정되고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 교회나 가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 논의가 신앙과 교회라는 종교적 내용과 공간을 넘어 기독교학교와 공교육과 같은 공론의 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인 인식론과 페다고지 등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아가 대안적 관점을 토대로 교육개혁의 방향과 방법의 제시와 같이 교육 전반에 대해 열린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말에서 전자의 입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후자의 입장을 더욱 중요하게 수용할 것이다. 어쩌면 위에서 제시한 두 범주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더욱 낫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정, 교회, 기독교학교와 같은 기독교 교육기관을 탐구의 대상에 포함하지만 공교육 전체를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기독교교육 혹은 종교교육 실시 여부를 초월하여 우리나라 교육 영역에서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이 기독교교육이라는 종교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참된 교육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기독교학교교육 연구소, 2008 ; 김세미·김정미, 2025 ; 박상진, 2025 ; 유은희, 2023 ; 이정미·송수지, 2012 ; 장유정·정희정, 2020 ; Edlin, 1999 ; Gaebelein, 이창국 역, 1991 ; Smith, 유은희 역, 2024 ; Van Brummelen, 1998 ; Overman & Johnson, 2003 ; Wolterstorff, 2003).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 기간 동안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편성을 포함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 논문이 전문 학술지에 51편 발표되었다고 한다(장유정·정희정, 2020). 이 중에서도 2011년부터 2021년 까지 발표된 논문은 그 총수의 78%인 40편이 된다. 이처럼 최근까지 이 주제에 대해 연구와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다시 이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이 주제가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 가지 이유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관계하며 본 연구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연구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에 근거한 실천 방안들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교육현장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목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기독교대안학교이고, 그 학교들의 역사는 길게 잡아도 이제 30년이 겨우 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안학교 역사의 중·후반기에 세워진 많은 학교들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와 실천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연구 영역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반복되는 일상적 교육현상들을 새로운 관점 혹은 방식으로 보게 하여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지금까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의 예외(강영택, 2008b; 2020 ; 이정미·송수지, 2012)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대안)학교와 같은 기독교교육기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한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대개 연구의 범위를 일반 공교육까지 넓히기를 주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 논의에서 공교육을 제외하면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과 입시교육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르침이 줄 수 있는 교육회복의 가능성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과 세속교육 혹은 공교육의 경계를 넘어 기독교적 가르침이라는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된 이 개념을 공론의 장에서 교육학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연구 주제의 편향성과 관계한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한계는 공교육이라는 연구 영역 혹은 대상을 배제한 것이라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연구 주제

가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며 추상성과 관념성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주된 관심 이었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변혁과 실천 중심의 새로운 관점의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Smith, 유은희 역, 2024). 지금까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주로 교과 지식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거나 학문과 신앙의 통합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면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교수-학습의 과정이나 페다고지(Pedagogy)와 같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가르침과 배움의 구체적인 경험들에 대한 탐구는 주목하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Smith, 유은희 역, 2024). 이러한 지적과 함께 또한 지금까지 기독교적 가르침 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시각을 성경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온전한 교육의 목표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세상을 단순히 어떤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과는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어떤 관점 혹은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와 그것을 위해 어떤 실천을 습관화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mith, 박세혁 역, 2018). 그리고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기독교세계관이나 '통합'과 같은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지나치게 지적으로 흘러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주지주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박상진, 2025 ; Smith, 박세혁 역, 2018).

지금까지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르침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사 연구영역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라는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전적 문화기술지는 자서전적(Autobiography) 방식과 문화기술지(Ethnography)가 결합된 형태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삶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기술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 반영된, 때로는 그 경험을 산출한 당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일반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정, 교회,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의 다양한 모임에서 여러 형태의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로 살았고, 기독교학교의 학부모, 연구자, 그리고 이사로 학교에 관여해 왔으며 지금은 다양한 교육현상들을 기독교적으로 연구하는 기독교적 교육학자로 살아가고 있다. 연구자가 본연구에서 자전적 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평생 마음에 품고 기독교교육 영역과 공교육 영역을 넘나들며 살아온 한 기독교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종교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핵심 연구 질문과 그에 따른 세 개의 하위 질문들을 가진다. 먼저, 논문 전체를 이끄는 주요 질문은 ‘연구자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와 그가 작성한 글들을 통해 이해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하위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삶의 스토리, 작성한 글들은 연구자의 생애 시기에 따라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둘째,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 그리고 글들의 분석을 통해 생애 시기에 따른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이해의 변화 그리고 이해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이었나?

셋째,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자전적 문화기술지를 통해 얻게 된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성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왜 중요한가?

## II. 이론적 배경: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공시적 이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말의 의미를 앞에서는 일상적 용례에 따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술연구에서 종종 사용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역사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적 접근이다. 먼저 역사적 접근이라 함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되던 초기 기독교학교 역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고 변천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방식이다. 공시적 접근이라 함은 최근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이 비교적 활발하게 실천, 연구되고 있는 한 시점에서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는 다양한 방식을 체계화시켜 보는 작업이다.

### 1.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이해

기독교적 가르침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학교들의 등장이라는 사회 현상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들이 대거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학교 설립 운동이 있었다. 첫째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초기 기독교학교운동이었고, 둘째는 1990년대 중엽 이후부터 202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유행처럼 일어난 기독교대안학교 운동이었다. 이 두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적 가르침과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것을 이해한 방식이 매우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과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차이는 그들이 제기하는 교육적 질문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기독교학교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되었던 바들을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초기 기독교학교의 등장 배경과 기독교적 가르침

구한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다수 개교하였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학교들은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근대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1885년 미국 감리회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의해 배재학당이 설립되었고, 1886년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경신학교가 창설되었다. 같은 1886년 미국의 감리회 선교사 스크랜턴에 의해 첫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다. 반면 우리의 민족지도자들과 토착 교회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기독교학교들도 다수 생겨났다. 이들 학교는 위태롭게 놓여있던 조국에 근대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었다(강영택, 2021a). 이처럼 민족교육을 중시한 기독교학교들 가운데 1906년 안창호가 평남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를 비롯하여 이승훈이 1907년 평북 정주에서 학교설립을 주도했던 오산학교가 있었고, 김약연 등 민족지도자들이 고향을 떠나 북간도 명동촌에서 1909년 설립한 명동학교 등이 대표적인 기독교 민족학교들이다. 이처럼 기독교학교들은 급속히 증가하여 1910년에는 700개가 넘는 기독교학교들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범주의 기독교학교들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는 서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전자에 속한 즉, 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들은 근대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학교 채플이나 성경시간에 틈틈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기독교적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후자에 속한 학교들 즉,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기독교학교들은 근대교육과 민족교육을 강조했고, 신앙교육이란 학교에서 중요하게 실시했던 근대교육과 민족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강영택, 2021a).

### (2) 1990년대 이후 기독교대안학교 운동과 기독교적 가르침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에 부흥했던 기독교학교들은 일제의 핍박으로 축소되어 갔고, 해방 이

후에도 기독교학교의 부흥을 촉진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안학교운동과 함께 기독교대안학교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을 사유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만든 대안교육운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2010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일반 공립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신앙을 학교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립미션스쿨에서도 신앙교육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이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교육을 학교 채플 시간뿐 아니라 교과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계의 매우 매력적인 사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불기 시작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성경적 관점으로 세계와 교육을 보고자 하는 염원을 기독교대안학교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성경적 관점으로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한 노력들은 세속적 성공주의에 기반한 공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신앙교육을 학교교육의 본질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있는 오랜 전통의 기독교학교- 소위 미션 스쿨-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발흥한 기독교대안학교는 그 말을 구성하는 ‘기독교’, ‘대안’, ‘학교’의 세 요소들 중 특히 ‘기독교’를 강조하면서 기독교대안학교의 의미를 그 이전 미션스쿨과는 달리 해석하였다. 즉, 기존의 기독교학교들은 기독교를 학교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교육을 기독교 신앙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해했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기독교적 관점이 학교 교육의 전반에 특히 교육과정에 스며드는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임을 자임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강조는 기독교적 관점을 기독교적 삶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잘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독교대안학교들 가운데는 기독교세계관의 영향보다는 일반 대안학교 운동의 흐름 가운데 등장한 학교들도 있었다. 이런 학교들의 관계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육적 대안으로 만난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대안학교운동이 발생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획일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입시교육이 주류를 차지했던 공교육에 반발하여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자율성, 자발성, 공동체성, 생태적 삶 같은 대안적 가치들을 교육의 모토로 내세웠다. 이 맥락에서 기독교계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먼저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로 삼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의 등장이었다. 이러한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그들 학교의 모델로 알려진 풀무학교를 그들이 닮아가야 할 전형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

계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한국교육 전체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를 ‘교회(당)의 활용’, ‘신앙교육’, ‘전도’, ‘세속으로부터 분리’ 등으로 해석하여 대안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들은 교회 내의 교인 자녀들에게 세속과 분리된 환경 속에서 신앙과 교과 지식을 함께 가르치고자 했다.

## 2.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공시적 이해

### (1) 기독교사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유형

오늘날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이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먼저 기독교적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유정과 정희정(2020)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결합된 Q방법론을 사용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기독교사들의 이해를 네 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이 유형화 작업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 네 가지 유형화 작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유정·정희정, 2020).

첫째,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각 학문을 탐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유형을 간단히 ‘신앙과 학문의 통합’ 모형, 혹은 ‘기독교적 수업의 재구성’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운동에 영향을 크게 끼친 개블라인(Gaeblein), 반 브루멜런(Van Brummelen) 그리고 오버만과 존슨(Overman & Johnson)등이 대표적으로 이 유형에 속한 학자들이다. 이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주류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블라인은 어떤 교과목이든 교과목이 신앙과 통합되는 방식은 신앙으로 충만한 교사를 통해서라고 한다. 즉, 성경말씀이 교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교사가 가르치는 교과목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조망에 의해 변화된 지식으로 이들의 내면에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았다(Gaeblein, 이창국 역, 1991). 반 브루멜런(1998)의 통합 모델은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과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오버만과 존슨(2003)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 수업(BWI) 모델은 교과 내용을 세계관의 기본 구조인 5개 영역(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장유정(2024)의 연구가 이 유형에 기반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신앙과 가르침을 통합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자료들이 이 유형과 관련하여 소개되었다.

둘째, 기독교적 가르침을 기독교적 수업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교육행정, 재정문제, 학생과 교사

의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등 모든 교육 활동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일컫는다. 이는 기독교적 수업 재구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기독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 두 번째 유형을 ‘기독교 세계관과 모든 교육활동의 통합’ 유형이라 명명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교사의 기독교적 삶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다. 즉,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사의 삶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업의 질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결과는 학생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기독교적 삶의 모델링’ 유형이라고 명할 수 있다.

넷째, 기독교적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가르침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방식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가르치는 일은 교육답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교사가 가르치면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거나 성경말씀을 교과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상이 교과지식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적 가르침

이상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기독교사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해보았다. 기독교사들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신앙과 교과의 통합’,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지식과 삶의 통합’ 등 통합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통합이란 단어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 영역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뿐 아니라 이 주제를 탐구하는 학문적, 이론적 영역에서도 핵심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통합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통합이란 단어 앞뒤에 오는 단어들 즉, 학문, 교육, 가르침, 신앙 등이 상호 간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나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등과 같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서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교육학자들은 통합의 의미를 신중하게 사용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김세미·김정미, 2025 ; 장유정, 2024 ; Gaebelein, 이창국역, 1993 ; Overman & Johnson, 2003). 장유정(2024)은 통합의 개념과 모형들을 설명하면서 참된 통합이 아닌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통합의 개념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반(反)통합적 관점인 분리적 이해이다. 둘째는 통합을 추구하지만 신앙과 학문 혹은 교육에서 부분적으로만

통합이 일어나는 부분적 이해이다. 셋째는 신앙과 학문 혹은 교육의 본질에서 통합을 추구하여 그 가능성을 보이는 전면적 통합 이해이다.<sup>1)</sup> 이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적 접근이다. 이는 달리 말해 반(反) 통합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세계를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으로 본 전통적 관점에 가깝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신앙을 갖게 하거나 신앙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대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교육과 가정교육 또는 기독교학교교육 등에 주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이 세속 교육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교육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Peshkin, 1989). 이러한 접근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기독교학교운동의 주류를 차지한 복음주의권 학교나 근본주의권 학교들에서 종종 발견되곤 하였다.

둘째, 부분적 통합 접근이다. 이 접근 방식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칠 교과목 관련 분야의 학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탐구한 뒤 그것을 기반으로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 기반이 되는 교육 철학과 전제 그리고 교육 목표 등이 기독교 신앙과 괴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교과 지식을 이해하게 하고, 이러한 이해는 비기독교적 관점이 난무하는 이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지식과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 이해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그 분야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는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접근에 해당하는 예들은 다수 있다. 창조-타락-구속의 개혁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의 각 단원을 재구성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브루멜론의 모델이 있고, 성경적 세계관의 다섯 가지 요소들 - 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 등 - 을 통합하여 수업계획안을 설계하도록 돕는 오버만과 존슨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BWI) 수업 모델(Overman & Johnson, 2004) 등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모형들을 여기서는 전면적 통합모형으로 보기보다는 부분적 통합 모형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사용되는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주지주의적이고 엘리트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과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향을 갖는 기독교세계관은 가르치는 교과목의 목표나 내용 등을 기독교신앙과 연결시키는데는 기여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습경험이나 전인적인 성장과정에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논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유은

1) 본 연구자는 다른 논문에서 통합을 보는 기준을 조금 달리하여 분리적 접근, 피상적 통합 접근, 내면적/본질적 통합 접근과 같이 세 범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강영택, 2020).

회, 2023)

셋째, 전면적 통합 접근이다. 이는 부분적 통합 접근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론적 차원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넘어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실천의 요소들을 강화하여 새로운 통합의 모형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Smith, 유은희 역, 2024)가 제시하는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교수 학습 활동이 학생의 전인적 형성이 되기 위하여 단지 기독교세계관이나 그 세계관으로 해석된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넘어 사회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활동의 의미를 규정하는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생활하게 할 때 비로소 학생은 그 가르침을 부분이 아닌, 총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유은희, 2023).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대학에 속한 공동학습회관인 페다고지움(Pedagogyum)에서 교수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당시에는 페다고지를 오늘날과 같이 가르치는 방법이나 기술, 교수활동의 체계적인 단계로 보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한동안 살아가고 배우는 보금자리로서의 집이나 가정을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다(Smith, 유은희 역, 2024).

### III.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

#### 1.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는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한 방법론으로 문화인류학자들의 낯선 세계에 대한 탐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어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문화기술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 혹은 집단의 문화를 탐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방법론이기도 하다. 자전적 문화기술지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복합어를 구성하는 세 어근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면 된다. 먼저, ‘자전적(自傳的, auto)’에 있는 초점은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고, ‘문화(ethno)’에 있는 초점은 문화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지(graphy)’에 있는 초점은 개인적, 문화적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면 자전적 문화기술지의 개념이 완성된다. 그래서 자전적 문화기술지를 정의한다면 연구자를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들을 성찰하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인 것이다(Mao et al., 2023).

배은주(2008)는 질적연구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를 밝히는 글에서 질적 연구의 최근 동향으로

‘자전적, 참여적, 연행적, 심미적’ 등 네 가지 특징들을 제시했다. 이들 중에 특히 ‘자전적’ 특징을 중요하게 보았다. 과거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 가서 낯선 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타자(세계)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 가까이 섞여 살아가고 있음을 본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 혹은 연구참여자가 함께 상호협력을 하는 가운데 연구가 수행된다. 연구란 과거에는 연구 대상인 타자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연구를 통해 타자를 포함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전적 성격을 가진 연구방법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인 부단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형성해 가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되어가는(becoming together)’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배은주, 2008).

자전적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작업은 문화기술지와 자서전적 방법을 결합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문화기술지의 특성인 자기 자신의 세계를 초월하여 외부 세계를 보게 하는 동시에 자서전적 방법의 특징인 자기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의도를 가질 것이다(Mao et al., 2023). 즉, 자전적 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이나 사건을 사적이고 감성적인 글쓰기 방식을 통해 제시하지만 개인의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는 개인의 주관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고 보다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은 결과라 보는 입장에서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분석하면서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 그것을 배태한 사회문화적 측면들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해 기독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방법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것을 연구 주체와 분리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 말의 개념, 역사, 기독교교육적 상황과 공교육적 상황에서 이해와 시행의 차이 등 중요한 점들을 밝혀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에 따른 이해는 개념적이고 인지적인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말의 의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본 연구와 같이 자전적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한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었는지, 그것이 한 집단에서의 상호작용과는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이러한 탐구과정은 연구자 자신의 내적 성찰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등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연구의 초점을 기존의 축적된 학문체계로부터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

로 옮기고자 한다.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현상의 다층적 의미를 새롭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들을 회상하여 기술하고 이를 과거에 썼던 글들과 함께 시기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을 분석하여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적 가르침을 삶의 중요한 주제로 마음에 품고 살아온 한 기독교인 교육(학)자가 머리와 가슴과 손발로 추구하면서 깨달은 바들을 토대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심화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전적 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는 매우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성향을 갖지만 동시에 연구자 개인의 경험들이 당시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래서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독교적 가르침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규명하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을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질적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자전적 문화기술지의 자료수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거치는 것이 선호되는 한 방식이다(Ellis et al., 2011). 즉, (1) 과거를 연대기화 함, (2) 자기자신의 목록을 수집함, (3) 자기를 시각화 함, (4) 자기 관찰을 수행함, (5) 자기성찰적 자료를 편집함 등이다. 여기서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삶의 스토리들을 위에 제시한 다섯 가지 단계를 고려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되는 자료 가운데는 연구자의 생각을 진술한 글들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먼저 연구자의 경험과 글들을 연대기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생애를 몇 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에 써서 발표한 글들과 그 시기에 경험한 삶의 스토리들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생애 시기를 구분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은 인생 중년에 있었던 미국 유학이었다. 그래서 유학 시기를 중간에 두고 유학 전 교사로서의 활동 시기와 유학 후 학자로서의 활동 시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학자로서의 활동 시기를 들여다보니 전반기에는 기독교교육적 이슈에 주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였고, 후반기에는 교육학적 주제에 대한 글을 주로 썼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학 전 교사로서 활동 시기(1989-1999): 기독교적 가르침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 시기

둘째, 미국에서의 유학 시기(1999-2006): ‘기독교적’과 ‘가르침’의 다양한 의미 탐색 시기

셋째, 귀국 후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하던 시기(2006-2017):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시기.

넷째, 교육학자로서의 활동 시기(2017-2026 현재): 기독교적 가르침이 갖는 의미의 외연 확대와 개념의 심화 시기.

다음 <Table 1>은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 관련 글들을 생애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연구자의 글은 논문, 저술, 잡지 기고 원고, 강연 원고, 일기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이 글들에 대한 분석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어떻게 변천 혹은 심화되어 왔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글들에 나타나는 연구자의 생각과 생각의 변화들이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상호작용 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1. The list of the researcher's writings on Christian teaching issues>

연구자 생애 시기	글과 책 제목	글의 종류 및 출판사	기독교적 가르침 관련 내용
1. 고교 교사 시기 (1989-1999)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풀무학교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기독교적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중 하나인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
	- 기독교학교운동의 역사와 과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독교사 (1999)	-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개혁의 방향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는 기독교학교를 추구함.
	-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예영출판사 (1999)	기독교세계관에 터한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행정, 교사양성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추구
2. 미국 유학 시기 (1999-2006)	- A comparative study of Fundamentalist and Reformed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Calvin Seminary에서의 석사논문을 보완)	<i>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amp; Information Technology</i>	- 미국의 기독교학교는 그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진다. 학교가 처한 상황이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작용한다면 교육은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Leadership to build a democratic community within school (MSU에서의 박사논문 보완)	<i>Asia Pacific Education Review</i>	-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라도 그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체적 문화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귀국 후 기독교교육 학자로서 활동 시기 (2006-2016)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 기쁨과 헌신의 배움을 위한 가르침	2008년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 강연 원고	-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의 내용, 방법, 목적, 교육의 주체 등의 영역에서 일반 교육학과는 다른 기독교학자들에 의해 지지 되는 새로운 관점의 교육학을 제시함.
	- 교육 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	신앙과학문 (2008)	- 수월성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수월성이 개인적인 경쟁력을 뛰어넘게 하기보다는 사회적 수월성을 강조함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의 병폐를 극복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가 형성된다.
	- 살롬을 위한 기독교교육: 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논총 (2008)	- 기독교적 가르침이 종교적인 성격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이 논문은 보여준다.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학문 (2015)	- 기독교교육은 살롬을 위한 교육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쁨과 책임을 갖게 한다.
4. 교육학자로서의 활동시기 (2017-2025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한 심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교육 (2021b)	심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의 근원적 바탕과 추구하는 목표를 성찰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살림터 (2022)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탐구》에서 연구자는 오늘날 중요한 교육적 이슈인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로서 일제강점기하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를 꼽는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모두 기독교적 가르침을 중요한 학교의 특징으로 삼는 학교였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까지 영향을 주어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어나가는 것이다.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	살림터 (2024)	-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의 머릿말에는 연구자가 대학 졸업 이후 걸어온 삶의 여정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진실과 아름다움을 교육자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밝히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신앙과 삶 (2023)	-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가지일 수 있다. 기독교수로서는 무엇보다 환대의 정신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교육의 미래 3: 미래교육의 길목에서: 탈학습	교육 비전 (2025)	-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비판적 성찰을 통해 탈학습할 것이 무엇인지 숙고가 필요함. '기독교적'을 종파적, 분리적, 개체적으로 오해한 측면이 많았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탈학습할 것을 기대함.

### 3. 연구자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와 작성한 글들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

여기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경험은 상당히 길고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났고, 그 시공간은 문화적으로 다양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경험에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이었다. 입시교육의 한 중앙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친 서울의 공교육 국어교사에서 기독교교육의 전통이 오래된 지역에서 미국의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그리고 동시에 개혁주의 전통의 기독교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로서 역할을 하였다. 귀국 후에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그리고 한국의 상이한 유형의 기독교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학부모로 그리고 일반 대학의 교수로서 그 역할이 매우 다양하였고, 이 위치성이 실제 한 사람의 경험과 그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생애 시기별로 연구자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왔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1) 유학 전 교사로서 활동 시기: 1989-1999

연구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의 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용어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 학교가 기독교학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들이 적극적이어서 신우회 모임을 결성하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성경공부도 하곤 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당시 많은 기독교사들이 지향했던 (기독교적) 가르침이었다. 연구자 역시 이런 형태의 삶을 살면서도 당시 편만하던 입시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학원을 다녔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내 신우회 모임과 동시에 학교 밖 기독교사운동단체인 기독교사회(TCF)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대학원에서는 교육학을 공부하며 입시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풀무학교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다. 대학원을 마치고도 진정한 교육에 대한 열망은 계속 되어 근무하던 학교 내에서 7-8명의 교사들과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에 대한 공부모임을 결성하여 꾸준히 공부를 하였다.

교직 초기부터 참여했던 기독교사회에서는 성경공부를 통해 기독교인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했다. 그 모임에서는 기독교사로의 부르심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의 부르심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2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ACTS) 산하에 기독교교육원이라는 작은 교육연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에서 실시한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993년과 1994년에 기독교사회 주최로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4일에 걸쳐 '겨울실험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학교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실제 교육활동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던 실험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이 모임을 주도했던 연구자는 그 학교의 목적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삶과 학문의 주인됨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강영택, 1999: 224). 1990년대 후반에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연구 모임의 수련회에 참석하여 그린(Albert Green) 박사과 브루멜렌(Van Brummelen) 교수의 글들을 읽으며 기독교적 교육의 개념을 보다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하며 그 모든 영역의 교육은 성경적 관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신앙을 가진 기독교사로서 올바르게 좋은 교육을 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당시 연구자의 마음에 있었던 주된 정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파행적 입시교육으로 인한 낙담과 비애감이었다. 어느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자율학습 -사실은 반 강제적인- 감독을 마치고 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 집으로 가다 혹시나 해서 우리 학급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동네 사설 독서실에 잠시 차를 멈추었다. 목직한 독서실 문을 열자 뻘뻘이 앉아 공부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열기가 훅하고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 후 연이어 학교 '자율학습' 까지 했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독서실에 온 것이다. 그들의 독서실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소설책도, 연애편지에 인용할 시집도, 철학책도 아니었다. 오직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참고서와 문제집들이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기독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과연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아슬아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날 이후 이런 고민들은 더욱 깊어져 갔다. 이 당시 많은 번민과 방황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실천을 계속한다면 그 바탕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땅의 아이들이 겪고 흘린 고통과 눈물이 있었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다.

유학 전 교사로 근무할 때 썼던 글 가운데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대표적인 글은 세 편으로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첫 번째요, 1998년 제1회 기독교사대회 강연원고들을 보완하여 1999년 출판한『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독교사』에 실린 기독교학교에 대한 글이 두 번째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ACTS)의 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학교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 온 교사와 교수들이 함

게 제작한 기독교학교에 대한 단행본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학교』를 출간했을 때 그 한 장의 글이 연구자의 세 번째 글이다. 석사논문에서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설립, 운영되는 폴무학교의 다양한 운영 주체들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참여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단행본에 포함된 두 편의 글은 당시 공교육의 난맥을 극복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당대 교육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던 무신론과 휴머니즘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교육은 무신론적 입장을 넘어 교육의 토대를 성경으로부터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강영택, 1999: 236-238). 그래서 교육을 새롭게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유신론적 관점에 근거한 기독교학교를 세워 학교교육의 모델링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처럼 첫째 시기에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는 당시 우리나라에 막 소개된, 학교교육의 전 활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행한다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표출되어 치밀하게 질문해야 할 바들이 그저 스쳐 지나쳐 버린 면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 시기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논의는 표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땅의 청소년들을 피해한 상태로 몰고간 입시교육에 대한 비판적 현실인식은 치열하고 날카로웠다. 반면에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독교학교 모델은 서구세계로부터 소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사유가 부족한 상태였다.

## (2) 미국에서의 유학 시기: 1999-2006

38세라는 중년의 나이에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내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낯선 땅 미국에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를 넘어 미국으로 가게 만든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첫째는 당시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큰 변화가 없지만, 입시교육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여 연구자 개인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패배의식이 작용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한 모델이 되리라 기대했던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 열망이었다. 한국에서 소문과 책으로만 알던 이들 학교와 교육에서 한국 교육의 형클어진 혼란스러움을 풀 수 있는 매듭을 찾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두 번째 석사과정 공부를 위해 미국에서 선택한 학교는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시(Grand Rapids)에 있는 칼빈신학대학원(Calvin Theological Seminary)이었다. 기독교적 교육과 기독교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화란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가난과 신앙의 핍박을 피해 미

국으로 이주하여 몇 곳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이고 이곳에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실천하는데 토대가 되는 신학적, 철학적, 교육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칼빈신학대학원과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가 있었다, 이뿐 아니라 개혁주의 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본부와 기독교학교 연합회 성격의 국제기독교학교(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본부, 개혁주의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판매하는 출판사들도 그 도시에 있어 그곳에 가면 한국에서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은근히 작용하였다.

연구자가 유학 첫 공부를 위해 선택한 칼빈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 전공 석사과정(MA)은 연구자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토대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함께 공부하기에 적절한 과정이었다. 그곳에서 중요하게 배운 바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가정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우리는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치 원리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배웠다. 석사논문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보는 기독교적 관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주의 기독교의 관점으로 씌어진 기독교학교의 사회교과서와 근본주의 기독교의 관점으로 씌어진 사회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이 두 기독교 공동체들이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이 하나로 존재하기보다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은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랜드 래피즈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집 아이 둘이 기독교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출석한 미국개혁교회의 재정적 도움으로 다니게 된 기독교학교는 그 사역을 학교만의 과업으로 보지 않고 교단 전 공동체의 사역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 교회,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가 일관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강조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은 기독교개혁교회(CRC)라는 교단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언약신앙의 토대 위에 현실세계의 형성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하나님나라 백성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보호자인 부모, 학교교직원, 기독교학교 교육구의 교육위원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생각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부모로서 경험한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징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 학교를 운영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었다. 영어를 하나도 못 한 채 유치원과 초등 1학년으로 들어간 우리 집 아이들은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서도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했다.

3년 동안의 그랜드래피즈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같은 미시간주의 이스트랜싱(East Lansing)에 위

치한 미시간주립대학교(MSU)의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다. 유학을 때 처음 생각했던 2-3년의 시간은 유학의 목표였던 ‘입시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적 교육’ 탐색을 하기에는 턱없이 짧다는 것을 알았다. 그 목표 중 이제 겨우 ‘기독교적’이란 말의 의미와 실체를 조금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과제는 가르침 혹은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많은 과제로 쫓기듯이 공부하느라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이 조금 흐려진 면이 있지만 박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배운 바는 분명했다. 그것은 교육이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교육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반면 공동체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공동체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공동체로서의 학교교육’과 ‘학교와 공동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라는 두 주제는 앞으로 계속 탐구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먼저 연구자의 박사논문으로 표출되었다. 그 논문제목은 ‘학교에서 진정한 공동체 세우기: 한국의 두 고등학교의 사례연구 (Building authentic community within schools: Case study on two Korean high schools)’였다. 7년이라는 유학생생활을 통해 ‘기독교적’의 다양한 의미와 ‘가르침’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미국 유학 시기 중 전반기 칼빈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독교적?’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고, 후반기 미시간주립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다. 그 공부의 결과는 각 학위논문으로 표출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앞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기독교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독교학교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점은 ‘기독교적’이란 말 속에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교육 출판사 두 곳에서 발간한 기독교학교 사회교재들을 비교 분석한 석사논문에서 그 책들은 사회와 윤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규범과 윤리가 비교적 잘 지켜지던 미국사회에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기독교적 규범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을 들어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 반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므로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아닌 누구든지 와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강영택, 2007). 이처럼 ‘기독교적’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박사논문을 쓰면서 배운 점은 ‘가르침’ 혹은 교육이란 것이 학교의 설립이념이나 공식 문서에 나와 있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 실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형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제도화도 필요하지만

평소 교사들이 교사 상호간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민주적이고 친근하게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강영택, 2008). 기독교적 가르침은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가르침이 자연스러운 문화의 옷을 입고 그 학교에 자리 잡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에서의 유학 시기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천의 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깨달음이지만 ‘기독교적’이란 말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 가운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다시금 세심하고도 심각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은 그랜드래피즈 기독교학교에서 발견한 교육의 실제 모습이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교육과정이나 교재와 같이 문서나 사물과 같은 형태 속에 존재하기보다는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환대와 배려의 마음과 태도가 만들어 내는 따뜻한 공동체적 분위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3) 귀국 후 기독교교육학자로서 활동 시기: 2006-2016

2006년 귀국 후 두 곳의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두 곳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시기는 (기독교)대안학교가 성장하던 때였는데 교회, 학부모, 교사, 학자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상호협력과 연대로 기독교교육의 성장의 토대를 이루었음을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기독교대안학교들에서 실천되었던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개별 학교나 교사들이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는 수준의 교육인 경우가 많아서 종종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대안학교들의 교육성고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었다(강영택, 2012).

당시 연구자가 한 대학원에서 했던 수업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각 지역에서 올라 온 원생들 -대부분 기독교인 공교육 교사이거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임-은 대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두 주간을 꼬박 수업에 참여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수는 원으로 둘러앉아 교수가 먼저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그 이론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들을 제기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토의가 수업의 주 내용을 이루었다. 아침 9시에 시작한 수업이 저녁 6시경 마치면 학생들은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방에 모여 토의를 이어갔다. 수업을 이끄는 교수나 함께 했던 원생들은 모두 수업에 몰입되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때의 교실은 말 그대로 ‘배움의 공동체’였다. 수업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만난 대안학교 교장이었던 한 원생으로부터 그때의 그 수업시간들은 마치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

간 같았다는 말을 들었다. 강의를 제공했던 연구자 본인도 그 당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을 기억한다. 이를 통해 배우는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우수한 교사 일인이 만들어 가는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교수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많은 요소들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공동체적 작업이란 사실이었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자, 학생, 학습 주제, 교실 공간의 구조, 분위기 등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sup>2</sup>

이 시기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들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자가 미국 유학생살을 마치고 귀국할 때 한국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귀국한 뒤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가 1년 동안을 생각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주었다. 진학할 고등학교를 찾다가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있지만 같은 도에 속한 지역에 있는 한 기독교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 학교는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교사가 기독교인이며 학교 채플을 통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의해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소문이 있는 인기 있는 학교였다. 그러나 아들은 그의 시각에서 경험한 학교의 권위주의 교육풍토, 융통성 없는 관료적 문화, 무조건 교재의 내용을 외우도록 요구하는 수업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아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실천되는 교실로부터 도피하였고,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홀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다수에게 유익한 기독교적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소수의 학생 혹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가르침을 과연 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다. 함께 공부하는 그룹에서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는 내면적 아픔을 심하게 겪어 미국의 대학에 진학한 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 시행한 소위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이에게 맞지 않아 아이를 힘들게 한 것처럼 집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의 아빠인 본 연구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교육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서 아이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들이 변하여서 아빠를 따라오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규범, 가치,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지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2) 이런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때를 회고해 보면 당시 수업 기간 중 발생했던 아프칸 한인 피랍사건이며 선생과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자녀교육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며 위로했던 따뜻한 분위기는 분명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음을 믿는다. 그러나 성령을 교육의 요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학과 기독교교육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육학적 연구로서의 본 논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각주에서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이 시기에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기독교교육에 대해 연구를 했고 글들을 썼다. 귀국 직후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컨퍼런스에서 연구자는 바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하였다. 연구자가 정한 부제는 ‘기쁨과 헌신의 배움을 위한 가르침’이었다. 이 강연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교육적 질문 - What?(교육내용), How?(교수방법), Why?(교육목적), Who?(교사론)-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생각을 전개하였다 (강영택, 2008: 5-12).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기독교학자들이 종종 취하는 관점인 ‘관계적 존재론’과 ‘인격적(personal) 지식론’ 혹은 ‘대화로서의 교육’ 등을 토대로 교육활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인식 주체와 대상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때 또는 유기적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래서 상호간에 참된 대화가 일어날 때 배움이 활성화 된다고 보았다. 이런 대화적 관계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에는 인격적 교류를 통한 기쁨과 헌신이 필수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가르침과 배움을 기쁨과 헌신에 연관시키는 것은 개혁주의 철학자 월터스토르프(N.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분석하면서 체계화시킨 생각이었다. 이 시기에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 ‘살림을 위한 기독교교육: 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보다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평화, 정의, 기쁨과 감사가 토대가 되는 살림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살림을 지향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활동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원 수업에서 연구자가 경험한 것도 일종의 살림 공동체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즈음에 발표한 논문 ‘교육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능력주의(meritocracy)와 결합하여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수한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비교육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의 근원을 탐구하였다. 사회적 수월성, 도덕적 수월성, 다양한 수월성 등 수월성의 개념을 넓게 생각한다면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의 문화가 조금은 덜 삭막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연구자가 경험한 삶과 작성한 글들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이론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됨을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함께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다.

#### (4) 교육학자로서 활동 시기: 2017-2026 현재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교육의 발전을 주제로 하는 『마을을 품은 학교공동체』가 책으로 출판된 것이 2017년 이었다. 사실 이 주제는 한국에서 쓴 석사논문과도 관계있고, 미국 유학기간 동안 가장 흥미있게 공부한 분야이기도 하였다. 이 주제가 본 연구자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동안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미뤄두고 있었다. 책을 저술하던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낯선 명칭으로 이 주제가 봄을 타고 전국의 대부분 교육청의 중심 정책과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책이 출판되고 나서 연구자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역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탐구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쉼과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시와 예술과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논문과 책을 저술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쉼과 교육, 시와 교육 등은 연구자가 갖는 관심사의 주요 주제들이다. 이러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연구와 글쓰기는 이전에 연구자가 오랫동안 해 왔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마을교육공동체, 쉼, 시와 아름다움 등에 대한 사유와 글쓰기로부터 기독교적 가르침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에는 안식 혹은 쉼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시가 추구하는 진실과 아름다움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견지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생과 교육을 알아갈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다.

본 연구자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초기부터 연구자의 문제의식에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교육문제를 삶의 참 진리 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학)계 일부에서 현대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대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시할 때,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와 가정,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 이 운동이 현대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주체가 신앙으로 난국을 극복하고자 했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교회와 학교였다는 사실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을 학교나 교회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차원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강영택, 2022).

2010년대 후반부터 연구자가 재직하던 대학에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으로 대거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중국인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 당시 한국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일과는 아주 다른 경험이었다. 학위를 쉽고 빠르게 얻기 위해 여기로 온 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은 공부에 열심이었고, 교수에 대한 존경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나 대학 당국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내는 것은 다분히 경제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갖지 않은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같은 질문들을 떠올리곤 했다. 한 기독교 매거진에 투고한 글에서 본인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환대’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심지어 선교라는 정당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환대와 돌봄(care)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대는 방문객의 수용 여부를 나의 기준이나 뜻에 의하지 않고 그 방문객의 뜻을 존중하여 타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돌봄은 환대한 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타자가 필요로 하는 바에 적절한 반응(response)을 보임으로 책임있는(reponsible) 관계망을 형성하여 타자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자세는 그들이 외국인인지 혹은 기독교인인지 등은 하등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고려할 점은 그들이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인지 하는 여부이다.

교실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는 선생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멀리 바다를 건너 온 유학생들을 따듯하게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가르치고 평소에도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소통이 있는 배움의 공간/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공간에서의 배움의 경험은 분명 이전에 그들 나라에서는 겪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즉 교실이 인격적 교류를 바탕으로 기쁨과 헌신을 배우는 장으로 작용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인 교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어찌 기독교적 가르침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시기에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쓴 중요한 글과 책에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쉼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생애사 연구’,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 등이 있다. 쉼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글에서 쉼은 배움 혹은 교육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요 배움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정립하게 하는 순간이 된다고 했다(강영택, 2021b). 이와 더불어 쉼은 그 본질적 활동인 사색과 관조(contemplation)를 통해 공부란 활동에서 얻기 어려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기도 한다. 즉, 쉼은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신의 은총으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쉼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가장 중심 자리에 놓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떤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연구자가 사례로 들고 있는 명동마을과 명동학교는 오늘날 소개되고 강조되는 마

을교육공동체와 닮은 데가 많아 이 학교를 우리나라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한 뿌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화목하고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같은 풍부한 시적 감수성과 뜨거운 민족정신으로 삶을 살았던 청년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토양이 되었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사와 학생 같은 개인적 관계나 교사와 다수 학생 사이와 같은 교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다 넓게 학생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 현장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을 혹은 지역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쓴 가장 최근 책인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은 연구자의 현재 생각들이 압축적으로 담겨있어 지금 연구자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교육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 책에서 ‘시(詩)적 교육론’을 제시하는데 이는 시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낯선 진실을 발견하게 하고 상투성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끼도록 하듯이 교육 역시 시와 같이 진실(眞)과 아름다움(美)을 추구하는 활동임을 보여준다. 즉, 참된 교육은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것도 그 속에서 기쁨과 헌신을 배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진실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 IV. 기독교적 가르침: 이해의 확산과 심화

### 1.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영향요인

앞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탐구와 연구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인생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겪은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였고 동시에 연구자가 각 시기에 쓴 글들을 근거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제시하였다.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문제들이 연구자의 경험과 글을 기술한 앞 장에 군데군데 얽혀있다. 그 인식의 변화 내용과 그 변화의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여 생애 시기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nges in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Christian Teachings and Influencing Factors Across His Life Stages>

생애 시기	핵심 키워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변화 (What & How)	영향 요인 (Why)
1. 고교 교사 시기 (1989~1999)	성경적 원리, 기독교세계관, 기독교학교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기독교학교 모델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신앙적 열심을 다해 입시 성적을 잘 내고 성경공부를 하는 것.</li> <li>• 후기: 무신론적 입시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토대를 둔 대안적 '기독교학교' 설립의 필요.</li> </ul>	[파행적 입시교육의 병폐와 교사로서의 무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 인문계고 국어교사로서 강제적 자율학습과 독서실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li> <li>• 서구의 기독교학교 이론 접촉 및 기독교사운동 참여와 대안교육 공부 모임 주도.</li> </ul>
2. 미국 유학 시기 (1999~2006)	한대와 배려의 문화, 민주적 공동체, 공동체적 문화	['기독교적'의 복수성 인식 및 '문화/한대'로서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적'이라는 의미가 신학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함을 깨달음.</li> <li>•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완벽한 교재나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교사의 '한대와 배려'가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적 문화에 있음을 인식.</li> <li>• 교육과 (지역)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함을 배움.</li> </ul>	[기독교학교 학부모로서의 경험과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미시간주(칼빈신학대학원, 미시간주립대)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및 최신 교육학이론 심층 연구.</li> <li>• 학부모로서 자녀를 미국 기독교학교에 보내며, 아이들이 특별한 교재가 아닌 '교사의 친절과 배려'로 편안하게 적응하는 것을 직접 목격.</li> </ul>
3. 귀국 후 기독교 교육학자 활동 시기 (2006~2016)	새로운 교육학, 사회적 수월성, 공공성, 살롬	['기쁨과 헌신, 살롬'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 주체와 대상이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기쁨과 헌신'을 누리는 대화적 교육.</li> <li>• 평화, 정의, 감사가 토대가 되는 '살롬'을 경험하는 과정.</li> <li>• 우수한 교사 개인의 역량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적 작업'이며,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수월성' 추구.</li> </ul>	[배움의 공동체 경험과 자녀의 부적응(상처)으로 인한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 후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성장기 목격</li> <li>• 대학원 수업에서 '예배와 같은 배움의 공동체' 긍정적 경험.</li> <li>• 아들이 한국의 억압적이고 관료적인 고등학교에서 큰 상처를 받고 부적응한 경험.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적 규범도 인간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성찰.</li> </ul>

<p>4. 교육학자로서의 활동 시기: (2017~2026 현재)</p>	<p>쉼과 성찰, 마을공동체, 환대, 탈학습</p>	<p>[마을로의 확장, 쉼과 시적(미적) 진실의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르침의 영역이 학교를 넘어 마을/지역사회로 확장.</li> <li>• 기독교적 가르침의 핵심 요소로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는 쉼(안식)과 진실-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詩)적 요소 포함.</li> <li>• 분리적/종파적 기독교 이해에서 벗어나는 '탈학습' 강조 및 환대와 돌봄(Care) 추구.</li> </ul>	<p>[시대적 교육 정책 변화 및 비기독교인 타자와의 조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전국적 확산 및 오산/명동학교 등 기독교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뿌리 연구.</li> <li>• 비기독교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다수 가르치게 되면서 선교의 도구가 아닌 연약한 타자로서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실존적 고민 발생.</li> <li>• 쉼, 안식, 시(문학) 등 삶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성찰 심화.</li> </ul>
---	------------------------------	---	--

이 글에 나타난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1기에서 연구자는 입시교육의 비교육적 제도화에 반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찾던 중 서구에서 발생한 기독교학교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서구의 기독교학교들처럼 교육에 대한 성경적 원리 혹은 기독교세계관을 탐구하여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 행정 등 학교교육의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2기에서 연구자는 기독교학교의 실체를 공부하고 학부모로서 경험하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학교 정관이나 교재 등과 같은 문서에 나타나기보다는 학생들과 늘 함께 하는 교직원들의 환대와 배려의 문화와 그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신앙공동체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3기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이론과 실천 그리고 학문과 실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하며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알게 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학습공간을 구성하는 교사, 학생, 학습주제, 교실공간 등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학습공간이 살림이 넘치는 공동체, 달리 말하면 정의와 평화와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4기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일어나는 교육공간이 기독교학교의 교실에서 확장되어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가르침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전에는 신앙을 가진 혹은 신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가르침의 주 대상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타자 혹은 방문객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고, 외부 상황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든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이러한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특정 종파성을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 영성과 가치와 윤리를 가르친다. 외국 유학생들이 한

국 대학을 많이 찾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교사에 의해 환대와 돌봄의 정신이 가득한 교실을 형성한다면 학생들은 그곳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그의 저서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에서 제시한 아름다움과 진실의 추구로서의 시(詩)적 교육은 그 자체로 기독교적 가르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생각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변화는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이 교사, 유학생, 학부모, 대학교수 등으로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존적 경험들과 그들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 개인의 내면적 변화는 연구자가 살았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간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의 깊이가 심화해 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심화된 연유를 연구자와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얻게 된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성과 핵심적 요인들을 기존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역설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 찾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과 이해 방식이 하나가 아닌 다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다수로 존재하는 특성들 가운데는 서로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상반되게 보이는 것들도 다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분명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를 넘어서는 것들도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적 가르침을 설명할 때 역설(paradox)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역설은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방식인 듯하다(Palmer, 이종태 역, 2006). 역설은 기독교교육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역설적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보편적 특성을 띠면서 동시에 지역성 내지 상황적 특수성을 가진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이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등의 말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용하는 지역에 관계 없이 어디서나 유사하게 일반화되는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논의할 때 종종 미국이나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형성되고 발달한 개념을 알기 위해 그 나라들에서 출

판된 책들을 참조하곤 한다. 그러나 교육은 그것이 행해지는 곳과 때의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기독교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기독교적 가르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겨난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르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적 가르침은 근대문명의 수용과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반면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해진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은 인성교육을 압살하는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의 극복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기에 미국 그랜드래피즈에서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과 한국의 기독교학교에서 경험한 것의 현격한 차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시행되는 학교와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교육과 신앙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부터 연유하는 바가 다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의 보편적인 성격을 탐구하는 동시에 오늘날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자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학문적 논의를 통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를 얻고자 강구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통합에서도 부분적 통합 보다는 전면적 통합이 보다 바람직한 개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참된 의미를 논함에 있어 보편적 개념에 대한 탐구와 함께 그 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특성(locality)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OECD, 2019). 이와 함께 AI의 대중화와 기후 위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적 이슈들도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다. 즉, 현시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기독교적 가르침 논의에 포함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탐구해 온 보편적인 지식을 중요시하면서 시대적 특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성과 AI와 기후 문제 같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긴장과 갈등 가운데 머물지 않고 역설적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종교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중시한다. 기독교학교는 그 설립 목표부터 기독교 신앙과 관계한다.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안내하며 이미 신앙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보편적인 과업이다. 즉, 종교적 목적과 성격은 기독교학교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 종교성이 배타적인 종파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기독교학교도 학교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이다. 즉, 학교는 유형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교육활동에서 학생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학생을 대상화하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태도는 한국 학생들 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멀리 해외로부터 공부를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들을 대학이 직면한 재정문제의 해

결 수단으로서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소중한 방문객으로 환대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반이 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이 강조되고 기독교적 학문과 문화가 중요하게 논의되던 때 경건한 종교성이 건강한 공공성의 토대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교성은 결코 공공성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독교교육 안팎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회를 살림의 공동체 즉, 보다 정의롭고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삶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Wolterstorff, 2003).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민족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신앙과 공공성이 대립하기보다는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기독교적 가르침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셋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이론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실천을 강조한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왔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세계관에 터한 학문의 검토와 해석 등의 활동이 기독교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sup>3</sup> 기독교세계관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학문과 신앙의 통합,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등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 이론화 작업이 오히려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수 학습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유은희, 2023).

기독교 신앙을 세계 회피적 종교로 보지 않고 세계 형성적 종교로 보는 기독교학자는 학문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실천을 중요시하게 된다(Wolterstorff, 2003). 월터스토프에 따르면 기독교 교육은 이 땅에 살림을 실현해가는 활동으로 보았다 그는 철학이나 교육학과 같은 학문을 할 때 이론화 작업이 실천활동과 상반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실천지향적 이론화 작업’이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Wolterstorff, 홍병룡 역, 1983) 월터스토프와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함께 이어받고 있는 데이빗 스미스(Smith, 유은희 역, 2024)는 기독교적 실천을 위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제시함으로 기독교교육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실천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실천을 중시하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에서 실천의 중요성은 기독교교육에서 뿐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최근 들어 강조되는 바이다. OECD에서 강조하는 역량(competence)교육은 기존의 지식교육을 넘어 지식의 활용과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니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을 재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3) 학술지 『신앙과 학문』이 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넷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개별적인 성격과 공동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대개 교사나 학생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 신앙고백의 차원으로 축소시킨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향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도 강하게 작용한 까닭이리라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 근대 학교제도가 정착하면서 뿌리 내린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한 교육시스템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기독교세계관으로 잘 무장된 교사가 기독교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의해 신앙으로 훈련된 학생들을 경건하게 교육시키는 활동으로 이해되곤 했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성공여부는 신앙과 학문 혹은 교육이 통합되어 교과 지식과 교수방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자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학습자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교수자의 측면을 생각해보면 학문과 신앙과 교수활동이 잘 통합되고 결합된 교사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도 다른 교사들과 팀웍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독교신앙에 기반한 교과교육을 잘 받아 우수학생으로 인정받으면 능력지상주의(meritocracy)가 만연한 사회에서 자신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키고 자기 개인의 신앙적 우월성을 자랑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독교적 가르침은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동체적 접근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앞 장의 연구자의 경험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독교적 가르침은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잘 드러나며, 그런 공동체의 형성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이기도 했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공동체적 성격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 3. 환대와 돌봄의 학습공동체와 기독교적 가르침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는 네 시기의 연구자 개인의 경험들과 글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다양한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가르침이 공동체적 성향과 관계한다는 점이다. 먼저 유학 전 기독교학교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과도한 기대를 갖고 유학을 떠나 실제 오랜 전통의 기독교학교 학부모로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경험한 바는 그 가르침의 고갱이가 가시적인 교육과정이나 문서 혹은 개별교사의 특별한 교수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대신 학교와 교실에서 느껴지는 친절한 기독교인 교사들 가운데

존재하는 환대와 돌봄의 정신(spirits)과 풍토 속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귀국 후 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했을 때 겪었던 바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 경험 역시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와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가는 교실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로부터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고 나아가 그 가르침은 그들이 만나는 교실을 보다 따뜻한 배움의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중국으로부터 유학 온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각했던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중국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실이 앞의 두 사례 교실과 다른 점은 교실이 기독교신앙을 표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기독교신앙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는 더욱 분명하게 교실을 환대와 돌봄이 있는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비교적 적극적으로 교수자의 의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어 학생과 교수 간 그리고 학생 상호 간 소통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때 연구자는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파머(Palmer, 이종태 역, 2006)의 조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타자의 말을 전심으로 경청할 것을 강조하였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 즉, 침묵과 성찰 역시 중요한 수업활동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나눔으로 형성된 학습공동체는 졸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8월중순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학술과 배움의 공동체(Academic & Learning Community)’를 설립하여 위챗(WeChat) 단체방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방학에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교육자와 연구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연구 영역과 주제를 찾기도 한다. 교실에서 형성된 학습공동체가 졸업 후 일상의 삶에서도 이어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주요 관심사이다.

연구자가 여기서 중국 유학생 사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 사례가 기독교적 가르침인가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단지 참다운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또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좋은 가르침이란 좋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요, 교실에서 형성된 학습공동체는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 혹은 지역사회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삶의 문제까지 함께 공유하는 돌봄의 공동체로 심화되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과 확대 과정은 성도의 비전안 살림의 구현과정과 닮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삶의 나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생의 신앙이 고백 되고 고백 된 신앙이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 반복될 때 신앙은 공동체의 토대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다른 무엇보다 환대와 배려의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발견된 것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 얼마 동안 단절되었다가 최근 새롭게 재인식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중세시대의 페다고지움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생활공동체와 동행한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학교를 포함한 마을 전체를 아름다운 마을교육공동체로 만들 고자 애를 쓴 기독교 민족학교의 예들도 기독교적 가르침과 마을공동체의 유기적 관계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강영택, 2022). 북간도의 명동학교와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등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학교의 교육토대로 삼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땀흘려 가꾼 학교와 마을공동체였다. 이 학교와 마을에는 낯선 손님들이 자주 찾아 왔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밥을 정성껏 대접하고 잠 자리를 제공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김약연을 비롯한 명동학교의 설립자들은 명성 높은 유학자들이었지만 당시 그들에게 낯선 근대사상과 기독교신앙을 조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는 과감함을 보였다. 그들은 시대의 전환기에 낯선 사람들과 사상을 맞이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환대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배려와 환대가 숨 쉬는 그곳 명동 마을은 윤동주 같은 청년들에게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도 시적 감수성을 키우며 뜨거운 민족정신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한 따뜻한 돌봄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강영택, 2022).

환대와 돌봄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은 두 영역인 기독교(교육) 영역과 환대, 돌봄, 공동체의 영역이 교차하는 점을 주목한다. 환대는 기독교 전통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핵심 가치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낯선 타자를 배척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한 전통은 구약성경에 많은 환대 관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과 상통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대의 정수를 보여 주셨다. 그는 늘 수많은 낯선 타자들 가운데 살았고 그의 사명은 그를 찾아오는 낯선 이들, 당시 사회의 주변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이었다. 거의 매일 예수께서 길을 걸어실 때 낯선 이들은 예수께 나아왔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바쁜 스케줄을 제쳐두고 그 낯선 이들 앞에 멈추어 서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들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예수께서 보이셨던 환대의 모습은 현대 철학자들 레비나스(Immanuel Levinas)와 데리다(Jacques Derrida) 등에 의해 환대 철학으로 체계화되었다. 레비나스는 낯선 얼굴로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타자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을 환대라 하였고, 데리다는 타자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들을 수용하는 ‘무조건적 환대’를 강조하였다.

돌봄은 건강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취약한 인간들이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돌봄을 주고받음으로 상호간 안녕(Well-being)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4). 오늘날 우리가 종종 만나는 교육현장에는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럴 때 기독교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환대의 태도이다. 그리고 도움이 다방면에서 필요함으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무엇보다 환대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V. 나가는 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 짧고 단순한 질문을 부여잡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이 질문이 짧지만 심각한 이유는 단지 책 읽기와 지적 사유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론적, 학문적으로 했다면 그 다음은 실천으로, 나의 삶으로, 궁극적으로 나의 전 존재로 그 답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탐색은 선불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엄중함을 알면서도 이 연구를 결심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이 본인 삶의 회고와 성찰을 통해 오랫동안 지녀왔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계획할 때부터 방법론은 자서전적(Autobiography) 방법이나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방법 중에서 선택하고자 했다. 연구자 개인의 생애에 초점을 두고 그 경험을 기술하기보다는 연구자의 경험을 분석 대상으로 삼되 그 경험이 일어난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 자전적 문화기술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들을 회상하고 기술할 때 그 경험들은 대개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교차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인식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은 그것을 배태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조금씩 변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자전적 문화기술지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은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에게 분명치 못하던 것들이 분명해진 면들이 있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지향하는 두 가치인 종교성/신앙과 공공성이 상호 대립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두 요소 모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적 가르침은 보편적 성격과 지역의 특수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학문의 이론 지향성과 실천 지향성이 상호 갈등

대신 역설적 종합을 이루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발견한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성’이다. 이는 환대와 돌봄이 기독교(교육)의 요체이며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환대와 돌봄이 자리 잡은 공동체에서 가장 잘 발현되고, 동시에 기독교적 가르침은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해 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가 한 기독교 교육(학)자의 삶의 형상화를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데 기여했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본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내러티브(Narrative)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질 것이며 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이 땅의 교육 전반을 새롭게 회복하여 기쁨과 책임 그리고 진실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교육을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영택 (1997).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풀무학교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강영택 (1999). 기독교학교운동의 역사와 과제, (기독교사연합 기획).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기독교사**. IVP.
- 강영택·이숙경·오춘희·임태규·최희원 (1999).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예영.
- 강영택 (2008a).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 기쁨과 헌신의 배움을 위한 가르침. **2008년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 자료집**.
- 강영택 (2008b). 교육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 **신앙과 학문**, 13(3), 9-55.
- 강영택 (2008c). 살림을 위한 기독교교육: 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Vol.17, 193-218.
- 강영택 (2012).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말한다**. 예영.
- 강영택 (2015).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 학문**, 20(1), 7-37
- 강영택 (2020). 살림의 교육: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통합연구**, 22(1), 7-26.
- 강영택 (2021a). 일제강점기 북간도 기독교학교운동의 특징과 교육적 시사. **미래교육학연구**, 31(1), 1-25.
- 강영택 (2021b). 청소년들이 경험한 쉼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생애사연구. **한국교육**, 48(1), 5-30.
- 강영택 (2022).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살림터.
- 강영택 (2024a).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신앙과 삶**. Vol.31, 6-7. 강영택 (2024b).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 살림터.
-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2008). **제2회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 자료집**.
- 김세미·김정미 (2025). 국내 신앙과 학문 통합 연구의 시기별 변화와 핵심 키워드 분석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2), 204-228.
- 김영천 (2013). **질적연구 방법론**. 아카데미프레스.
- 김희강·나상원 역 (2024). **돌봄 민주주의**. Tronto, J. (2013) *Caring Democracy*. 박영사.
- 박상진 (2025). 기독교 교육 인식론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르침: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박세혁 역 (2018). **습관이 영성이다**. Smith, J. (2016). *You are what you love*. 비아토르.
- 배은주 (2008). 질적연구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1(2), 1-27.
- 유은희 (2023). 기독교적 교수-학습 모형 탐색: D.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신앙과 학문**, 28(3), 91-121.
- 유은희 역 (2024).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움**. Smith, D. (2018). *On Christian Teaching*. 이레서원.

- 이정미·송수지 (2012).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과 의미: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면담 연구: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면담 연구. **장신논단**, 44(1), 213-247.
- 이종태 역 (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Palmer, P. (1983). *We know as we are known*. IVP.
- 이창국 역 (1991). **신본주의 교육**. Gaeblein, F. (1954). *The Pattern of God's Truth*. 기독교문서선교회.
- 장유정·정희정 (2020). 기독교사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주관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Vol.67, 165-197.
- 장유정 (2024). 신앙을 통합한 가르침 새로운 접근의 필요. **생명과 말씀**, Vol.39, 119-158.
-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Wolterstor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IVP.
- Edlin, R.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 Ellis, C., Adams, T. & Bochnen, A. (2011). Autoethnography: An Overview.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12, No. 1, Art.10.
- Greene, A.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lorado Springs, CO: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Kang, Y. (2007). A comparative study of Fundamentalist and Reformed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177-195.
- Kang, Y. (2009). Leadership to build a democratic community within school.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0:237-245.
- Mao, J., Romero-Hall, E. & Reeves, T. (2023). Autoethnography as a research method for educational technology: a reflective discourse. *Education Tech Research Dev* (2024) 72:2725-2741.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 Overman, C. & Johnson, D. (2003). *Making the Connections*. The Biblical Institute: Washington.
- Peshkin, A. (1989). *God's Cho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Brummelen, H. (1998).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Alta Vista College Press: Washington.
- Wolterstorff, N. (2003). *Education for Sahlom*. Grand Rapids, MI.

#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한 기독교 교수의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 - 역설과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

## An Autoethnography Study of a Christian Professor on Christian Teaching - Christian Teaching as Paradox and Community

강영택(우석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이 질문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학문적 논의와 지적 사유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론적, 학문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삶과 실천으로 그 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자 개인의 삶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방법론인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생애를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일어난 삶의 경험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소들이 한 인식 주체로서 존재했던 연구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그 탐색을 통해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자전적 문화기술지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연구자에게 분명치 못했던 것들이 분명해진 점들이 있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지향하는 두 가치인 종교성 혹은 신앙과 공공성이 상호대립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두 요소 모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설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가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문적 이론 지향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실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발견한 점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공동체성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환대와 돌봄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잘 발휘되고, 더불어 그런 공동체를 형성, 강화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무엇보다 환대와 돌봄의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며 그 공동체를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은 풍요롭게 경험될 것이다.

주제어: 기독교적 가르침, 자전적 문화기술지, 기독교(대안)학교운동, 기독교적 가르침과 역설,  
기독교적 가르침과 공동체, 환대와 돌봄의 학습공동체